



사례로 알아보는 수출입과 관세 (2)

수출입 계획 전에 생각할 것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늘 무언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중소 PCB 제조 회사의 K과장도 언젠가는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일구어 낼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

어느 날 K과장은 베아테 우제(Beate Uhse) 여사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아테 우제 여사는 2차 대전 때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잃고 장난감과 쇼핑백을 팔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의사였던 어머니에게서 배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부생활 및 성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번창했고 독일 및 유럽에 150여 개 직영 스텝을 운영하고 연간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성인용품 및 섹스산업 업체가 되었다. 또한 베를린에 이 회사가 설립한 '에로틱 박물관'은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이것이다!”고 생각한 K과장은 여기저기 자료를 수집하고 조언을 구했다. 마침 옆 부서 부장님과 술자리에서도 베아테 우제 여사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진지하게 성인용품 수입 사업에 대한 포부를 펼쳐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용품을 나쁘게만 보고 숨기려고만 하죠. 그렇지만 개인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부장님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다 좋은데, 그런 진전한 풍속을 해치는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K과장은 아직도 다른 사업 구상에 몰두 중이다.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사업은 접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은 뜻 밖에(?) 좋은 선택이었다.

성인용품은 현행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지금까지 성인용품을 수입하려면 시도가 수 차례 있었으나 “공공의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수출입이 금지된 판례가 있다¹⁾. 이 외에도 위조지폐, 국가의 정보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등을 관

세법 제 234 조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관요건’이라 불리는 각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규제나 제한 등도 수출입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통관요건으로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차차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무역지원 기관의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각 국가별 수입규제제도과 관세제도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²⁾.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은 자사의 품목이 각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쿼터 등에 의해 거래품목의 수출이 제한 될 수 있는지 정도의 의사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이 규제되거나 제한되는 정도는 전체 거래품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효시인 HP가 지금과 같이 거대기업으로 거듭난 계기는 ‘잉크젯프린터’의 개발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연구개발부서의 한 직원이 커피를 쏟으면서 우연히 착안하였다고 한다. 이 일화는 작은 아이디어의 소중함을 말해 주는데, 수출입에 대한 사업구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K과장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이번에는 아쉽게도 수출입 금지 품목이었지만 언젠가 수출입 거대기업 탄생의 기반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K과장의 대박을 기대해 본다.

신한관세법인

1965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관세법인으로 서울, 부산, 인천공항 및 인천 경기 지사를 두고 있으며, 15명의 관세사와 26명의 파견 및 행정지원인력이 한국아이비엠, 듀폰, 유한킴벌리 등 굴지 기업의 통관물류관리, AEO, ACVA, 자율심사 등 종합적인 무역컨설팅을 대행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업계 최초로 FTA에 관련된 실무지식을 일반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는 FTA GATEWAY 홈페이지(www.ftagateway.co.kr)를 개설했고, 관세사로 이루어진 FTA TF팀을 통해 관련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1) 관심 제2007-16호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